

취업난·빈곤 광주 청년 외로움·고령 전남 노인 희망을 접는다

복지부 2013~2017 자살사망 분석

광주 1574명 중 청년 21.1% 전남 2632명 중 노인 35.4% 전국 최고 수준... 대책 마련해야

광주와 전남이 각각 청년기와 노년기 자살사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5개년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청년기(19~34세) 자살사망자의 비율(전체 자살사망자 가운데 청년의 비율)이 21.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는 21.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15.7%보다 5% 이상 높았으며, 광주에 이어 서울(19.9%)·대전(18.5%)의 청년기 자살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11.7%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청년기 자살사망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데에는 취업난과 청년빈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 7월 기준 광주지역 고용률은 58.9%로 전국평균인 61.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실업률의 경우 3.4%로 전국평균인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조사 기간 1574명이 자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기(35~49세) 455명, 장년기(50~64세) 396명, 노년기(65세 이상) 352명, 청년기 332명 순으로 많았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년기 자살사망자 비율(전체 자살사망자 가운데 노년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의 노년기 자살사망자 비율은 34.5%로 전국 평균(27%)을 크게 웃돌았으며 충남(34.1%), 전북(32.7%) 등의 순으로 높았다. 광주는 22.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고령인구비율과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노년기 자살사망자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전남의 고령인구비율은 24%, 독거노인비율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 기간 2632명이 자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 907명, 장년기 704명, 중년기 671명, 청년기 307명, 아동기 43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5년 간 6만 4124명이 자살사망했으며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장년기(28.1%), 중년기(27.7%), 노년기(27%), 청년기(15.7%), 아동기(1.5%) 순이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2만 3150명·36.1%), 경제 문제(1만2504명·19.5%), 신체건강 문제(1만1159명·17.4%), 가족관계(7045명·11%)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시도별 특성을 확인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학교 교육력 회복 위해 사업총량제 도입

전남교육청, 내년 1759개 이내로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사업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업무 개선에 나섰다.

사업총량제 도입에 따라 2022년부터는 도 교육청 전체 사업이 1759개를 초과할 수 없다. 경직성 사업을 제외한 876개는 총량 유지를 위해 집중 관리한다.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도입할 경우에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한편 기존 사업을 폐지해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2012년부터 10년 간 매년 6~34%씩 사업을 감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예산서 작성기준과 사업량 산출 기준이 매년 달랐기 때문이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사업목록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예산

서상 사업 수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한 결과 사업 총량이 1759개로 과중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인건비, 시설 개선과 확충비, 교육복지, 교직원 복지 등 776개 사업을 필수로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사업으로 보고, 사업총량제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학교 현장에 업무부담을 주는 목적사업, 행사성 사업, 관행적인 사업 등을 정비해 107개의 사업을 추가로 제외했다.

이 과정을 거쳐 분류된 경직성사업과 폐지사업을 제외한 876개를 본청 사업의 적정량으로 보고, 사업마다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도 교육청의 복안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사업총량제 도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교육력 회복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장이 체감하는 참신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 지역 거점 공간으로 지역활성화 나서

'역전커뮤니티센터'·'맛있는 예술여행센터' 개관

광주시 북구가 지역 거점 공간을 활용해 도시재생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인 '역전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오는 30일 지역 예술관광의 거점 공간인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문을 연다.

'역전커뮤니티센터'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무등로 277에 지상 4층(연면적 660㎡)으로 건립됐다. 역전센터는 1층은 마을카페, 2층 다목적강당과 북카페, 3층 세미나실, 4층은 공동부엌과 하늘정원으로 조성돼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주민 중심 도시재생의 역할을 맡게된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지난해 광주시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총 6억원을 들여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조성된다.

예술여행센터는 ▲여행자 서비스 공간 ▲예술체험 및 홍보 공간 ▲다목적 야외테라스 등으로 구성된 지역 내 관광 유관기관 및 기업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술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게된다.

특히 여행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 비엔날레 런닝맨, 비엔날레 특별 관광버스, 맛있는 아토피크닉, 슬기로운 캠핑플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이민원 대비 훈련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청사 1층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련됐다. <서구청 제공>

광주시,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내달 8일까지 대형마트 등 112곳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점포시장 등 판매시설 및 영화상영관, 여객시설 등 1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광주시와 자치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원 등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변형·균열·

누수 등 결함 ▲시설물 방화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을·이웃이 치매환자 보듬는다

광주 동구,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광주시 동구가 마을과 이웃이 치매환자를 보듬을 수 있는 안정망을 구축한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산수2동이 치매 환자가 마을 내에서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안심가맹점' 사업의 시범동으로 선정됐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세탁소, 미용실 등 개인 사업자가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안정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이다.

가맹점의 주요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치매 어르신 돕기 ▲치매 어르신 안부 묻기 ▲치매안심센터 등에 치매 관련 정보 알리기 ▲치매 극복 캠페인 참여 등이다.

활동 방법은 신청한 개인사업장이 치매 파트너즈

교육을 수료하면 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는 구청에서 배부한 치매정보 리플릿 및 치매홍보물 상시 비치,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등 치매가맹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는 단순히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이웃과 마을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대상성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